

중년여성 신경증 환자와 정상인의 성역할 비교

안 귀여루·최 정 윤

가톨릭의과대학부속 강남성모병원신경정신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신경증집단과 정상집단의 성 역할을 비교해보았다. Bem의 체계에 따라 남성형, 여성형, 양성공존형, 미분화형으로 나누었다. 결과는 정상집단이 신경증집단에 비해 양성적인 사람들의 수가 많았으며, 신경증집단은 양성이 모두 낮은 미분화형의 사람들이 많았다.

한편 실제 자기의 성 역할과 이상적 역할을 비교해 본 바 신경증집단이 정상집단보다 남성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신경증집단이 정상집단 보다 남성적인 특성을 갖기를 원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 론

중년은 여성들에게 있어 아이들을 키우고 가사를 돌보는 일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어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중년 여성들은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떠난 텅 빈 등지를 지키는 어미새에 비유되고 있으며, 자유로운 시간들을 즐긴다기 보다는 오히려 우울에 빠지게 된다는 연구들이 많다(Bart, 1971).

대부분의 문화가 공통적으로 갖는 믿음 중의 하나는 남 녀 각 성은 특정한 역할과 과업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여성은 아내이자 어머니, 주부, 양육인이고, 남성은 남편이자 아버지, 돈벌이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다. 다시 말해 여성의 역할은 부드러움, 양육, 그리고 동정

심의 특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경쟁심, 공격성, 독립심과 같은 특징들은 남성이 맡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받아들여 진다. 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밑바닥에는 여성은 가정 안에 있고, 남성은 가정 밖에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김태련외, 1988). 그런데 중년기에 이른 여성들은 이제까지 자신의 활동 영역이었던 가정내에서의 일들이 축소됨으로서 공허감과 무가치감을 느끼게 되며, 자기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넘기는 데에는 양육이나 지지등에 필요한 여성적 특질 이외에 새로운 역할 수행에 필요한 독립성, 진취성, 지배성등 남성적인 특질을 갖는 것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0여년간 발달을 전 생애적인 과정으로 보

는 견해에 따라 성인의 성격이나 적응에 대한 연구가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성인 여성의 특징은 아직도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은 영역이다. 여성 성인기에 대한 연구는 대개 몇가지 한정된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중 성 역할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정소영, 1985).

이제까지의 연구들에게 나타난 성 역할의 정의들을 살펴 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 역할이란 남 여를 구분시키는 특징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된 신념이라는 것이다. (Broverman et al., 1972). 즉, 남성적 성 역할이란 일반적으로 남성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특성을, 여성적 성 역할이란 여성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특성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 역할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최근 이것이 관심의 분야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즉 성 역할을 생리학적, 해부학적 성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개인의 환경과 상호 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술 혹은 능력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Kelly & Worell, 1977). 따라서 성 역할의 새로운 개념은 전통적으로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간주되던, 양극적인 개념을 깨뜨리고 이 두 개념의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성 역할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 대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 행동의 선택 범위가 국한되어 있다고 보고 한다(Bem, 1975).

Bem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수용하고 발달시킨 남 녀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하다는 사회 일반의 통념과 심리학적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화적으로 부과된 성역할을 내재화 하는 것은 실제로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행동 목록의 발달을 저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고정된 성 역할과 정신장애가 관계가 깊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새로운 성 역할 개념과 새로운 성 역할 측정도구의 발달결과로서 나타난 새로운 주제는 심리적 양성성이다. 이 양성적 유형의 성 역할을 가진 사람

은 전통적으로 규정된 소위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즉, 한 개인이 수줍어 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잘하고 지배적이면서도 양보심이 있고, 경쟁적이면서도 인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 즉, 양성적인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나 강화를 얻는데에 필요한 행동양식을 남 녀 특질에 관계없이 행동목록에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다(Bem, 1974, 1975; Bem & Lenny, 1976). 더욱이 다양한 형태의 행동양식이 요구되는 현대와 같은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이것은 더욱 더 바람직한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Kelly & Worell, 1977).

성 역할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나이에 따라 성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 본 것인데 대부분이 종단적 연구가 아닌 횡단적 연구여서 실제적인 성역할 발달을 본 것이 아니라 동년배 간의 성 역할의 차이를 본 것이며 또한 연령에 따른 성 역할의 차이를 보았을 뿐 그것이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지는 않았다.

성 역할에 대한 또 한 종류의 연구는 성 역할의 유형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살펴본 것들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 성 역할을 갖는 사람보다는 양쪽의 특성을 다 가진 사람, 즉 다시 말해 양성적인 사람들이 행동과 대인관계에서 융통성을 보이며, 원활한 지적기능의 수행, 높은 자아 존중감을 보여준다고 한다. 반면 성 유형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성 역할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개입되는 것을 꺼리게 되며, 성 역할과 틀린 역할을 행하게 되면 심리적 불편감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한다(Bem, 1975; Bem & Lenny, 1976).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성인 초기, 즉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이것을 중년이나 노년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성 역할은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사회적 경험

이 다른 동년배별로도 달라지고, 각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Spence & Helmreich, 1978).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 역할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도 청년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중년이나 노년에 대한 연구는 행해진 것이 거의 없다(김득란, 1980; 김희강, 1980).

특히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은 사회 문화적, 경제적 변화를 격심하게 겪은 세대이다. 이들은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봉건적 가치관 하에서 자랐으나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중년 여성들은 여유를 얻게 되고 남는 시간들을 가사일이 아닌 다른 일들에 사용하는 일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여성의 성 역할이 지나치게 여성적인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성공적인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정신과 외래에 오는 중년 여성의 MMPI에서 Mf 척도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도 임계선(T점수 30) 이하의 Mf 척도가 적응상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중술, 1988; Butcher, 1969; Lacher, 1973)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과 외래 환자 중에서도 중년 여성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김정근, 1983)는 보고이다. 외국에서 행해진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임상적으로 우울하다고 판단되어 병원치료를 받는 중년 여성들은 정상 중년여성들에 비해 BSRI(Bem sex Role Inventory) 검사에서 여성성 점수가 높았으며(Tinsley, Guest & McGure, 1984), Ray등(1978)은 우울한 여성들의 성 역할을 측정해 본 결과 양성적이거나 남성적 성 역할 특성을 갖는 이들보다 여성적 성 역할 특성을 갖는 이들이 많음을 발견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한 여성 우울증 환자들은 PRF ANDRO(Personality Research Form-ANDRO) 척도에서 남성성 점수를 낮게 받았고, 정신 병리적 상태는 낮은 남성성 점수와 연관이 있

음이 시사되었다(Berzins, Welling & Wetter,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성 역할이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관련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신경증집단과 정상집단의 성 역할을 비교하였다. 신경증집단의 경우 정상집단에 비해 성 역할이 여성형으로 고정되어 있고, 여성성의 점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정상집단에 비해 신경증집단의 여성들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성 역할과 실제적인 자신의 성 역할에 차이가 많을 것이라는 가설도 함께 검증해 보고자 한다.

방 법

1) 피험자

본 연구에서는 40-55세에 이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집단은 강남성모병원의 외래 신경증환자들이었고, 비교 집단은 주로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로서 정신과를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2) 측정도구

-BSRI(Bem Sex Role Inventory)

심리적 양성 공존 특성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소영(198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남성적 특성 20개 문항, 여성적 특성 20개 문항, 그리고 끼워넣기 문항이 20개 포함되어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점: 전혀, 혹은 거의 그렇지 않음부터 7점: 항상 혹은 거의 항상 그러함 사이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측정 변수는 여성의 남성적 성 특성과 여성적 성 특성이다. 피험자의 성 역할은 BSRI의 제작자인 Bem이 제안한(Bem, 1977) 중앙치 분리법을 사용하였는데 정상인 60명을 대상으로

BSRI를 실시하여 여기서 산출한 중앙치를 기준으로 삼았다(중앙치 ; 여성성-4.45, 남성성-4.03).

3) 방법

먼저 피험자들을 구분한 기준을 얻기 위해 정상인 60명을 대상으로 BSRI를 실시하여 남성성과 여성성 중앙치를 구하였다.

피험자들에게 두 종류의 질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첫번째는 BSRI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다음으로는 같은 질문지에 대해 자기 바라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결 과

신경증집단과 정상집단간의 성 역할을 먼저 비교해 보았다. 신경증집단의 경우는 양성적인 사람이 적고, 미분화된 사람이 많았다.

정상집단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양성적인 사람이 많고, 미분화된 사람이 적었다. 한편, 성 유형화된 사람들의 분포는 두 집단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표1. 신경증 집단의 성역할 유형

빈 도 (%)		여성성		
		높음	낮음	전체
남성성	높음	3 (10.00)	4 (13.33)	7 (23.33)
	낮음	12 (40.00)	11 (36.67)	23 (76.67)
	전체	15 (50.00)	15 (50.00)	30 (100.00)

표2. 정상집단의 성역할 유형

빈 도 (%)		여성성		
		높음	낮음	전체
남성성	높음	10 (33.33)	4 (13.33)	14 (46.67)
	낮음	14 (46.67)	2 (6.67)	16 (53.33)
	전체	24 (80.00)	6 (20.00)	30 (100.00)

표 3에서 신경증집단과 정상집단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표 3, 4 참조).

표3. 정상집단과 신경증집단의 남성성 비교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신경증	30	3.25	0.99	0.18
정 상	30	4.11	0.74	0.13

표4. 정상집단과 신경증집단의 여성성 비교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신경증	30	4.46	1.01	0.18
정 상	30	4.24	1.03	0.18

신경증집단의 여성성 평균은 4.46였고, 정상집단은 4.24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경증집단의 남성성 평균은 3.25였고, 정상집단은 4.1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3.76, P < 0.01$).

한편 자신이 되고자 원하는 이상적인 성 역할에 대해서는 신경증집단은 여성형과 미분화형은 줄어들고 남성형과 양성형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의 70%가 남성적 특징을 보다 많이 갖고자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집단의 경우에는 여

성형집단만 줄어들고 나머지 집단은 모두 증가되었다. 따라서 정상집단의 경우도 50%가 남성적 특징을 더 갖고자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성역할에 있어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5. 신경증 집단의 이상적 성 역할

빈 도 (%)	여성성			
	높음	낮음	전체	
	남성성	8 (33.33)	13 (43.33)	21 (70.00)
	낮음	6 (20.00)	3 (10.00)	16 (30.00)
	전체	15 (46.67)	15 (53.33)	30 (100.00)

표6. 정상집단의 이상적 성 역할

빈 도 (%)	여성성			
	높음	낮음	전체	
	남성성	11 (36.67)	4 (13.33)	15 (50.00)
	낮음	12 (40.00)	3 (10.00)	15 (50.00)
	전체	23 (76.67)	7 (23.33)	30 (100.00)

신경증집단과 정상집단이 변화를 원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점수를 가지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비교해 보았다(표 7, 8 참조).

여성성에 있어서는 변화를 바라는 정도가 신경증집단과 정상집단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성에 있어서는 신경증집단이 정상집단 보다 변화하고자 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더 컸다($t = -2.41$,

$P < .05$). 따라서 신경증집단은 정상집단 보다 남성성을 많이 가지는 쪽으로 변화하려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표7. 신경증집단과 정상집단의 이상적 성 역할과 실제적 성역할의 차이 비교(남성성)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신경증	30	-1.17	1.64	0.30
정 상	27	-0.26	1.10	0.21

표8. 정상집단과 신경증집단의 이상적 성 역할과 실제적 성역할의 차이 비교(여성성)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신경증	30	0.16	1.46	0.26
정 상	27	-0.26	1.16	0.22

논 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상인 집단은 양성형의 사람이 유의하게 많았고 신경증 집단은 미분화된 성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남성형 또는 여성형의 성유형화된 사람의 수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나치게 여성화된 성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리라던 가설과는 달리 남성성, 여성성 어느쪽도 개발이 되지 않은 성 역할의 미분화가 신경증 집단의 특색으로 나타났다. 즉 지나치게 여성적인 성 역할이 신경증 집단의 부적응의 한 요인일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다. Bem이 1972년에 양성성의 개념을 심리학에 도입한 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이론이 대두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양성성은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징과 남성적 특징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aplan & Sedney, 1980) 그런

데 본 연구결과를 보면 신경증집단의 여성들은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들을 남성성, 여성성 어느쪽에서도 발달시키지 못한 사람들로 보여진다.

그러나 두 집단을 성유형별로 비교하지 않고 두 집단의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만을 비교한 경우 정상집단이 신경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남성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을 잘하는 정상집단의 경우 신경증집단에 비해, 독립성, 경쟁심, 공격성과 같은 남성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집단과 신경증집단이 이와같이 남성성 점수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사회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남성적인 성역할을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고 성공적으로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것이다.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 남자들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연구보고들이 있어왔다 (Goldberg, 1968). 이것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지 않았던 사회현실의 반영이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윤진, 1981). 일종의 무의식적 관념으로 개개인의 사고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진 현대에 와서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성역할 보다는 우수하다고 믿는 반대편 성의 역할을 갖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그 정도도 커질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역할과 실제 자신의 성역할을 비교했을때, 양집단이 모두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남성적인 성역할을 갖기를 원했으나, 신경증집단이 그 원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큰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경증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자신의 성역할에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적 특징을 더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성이란 자기 주장적이고, 활동적이며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독립적이고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등의 특징으로 전반적으로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신경증환자들은 자

신들이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갈등때문에 더 남성적인 특징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이 여성다운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않는 상황에서는 여성적인 성역할 유형을 가진것이 일상의 적응에 심각할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않지만,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는 중년 여성들이 남성적인 특성들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신경증집단의 경우 그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후 연구들에서도, 성역할이 개인의 적응의 여러가지 측면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득란(1980), 정신 질환자와 정상인의 성 성향 비교,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정곤(1983), 중년여성 내원 환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의학 2권 4호.
- 김중술(1988),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임상적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공역(1988), 성의 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희강(1980), 새로운 성역할 개념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심리학과
- 윤진(1981), 남녀차이에 대한 한 고찰-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 Vol 15, 21-33.
- 정소영(1985), 의식향상 훈련이 여성의 양성공존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art, P. (1971), Depression in Middle-Aged Woman, In V. Gonick & B. K. Moran (Eds), Woman in Sexist Society :

- Studies in Power & powerlessness, New York : Basic Books,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em, S. L., & Lenny, E. (1976) Sexn typing and avoidance of cross sex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48-54.
- Berzins, J. I., Welling, M. A., & Wettr, R. E. (1978), A new measure of psychological androgyny based on the personality research for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26-138.
- Broverman, I. K., &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 Krantz, P. s., (1972), Sex role Stereotypes :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38(2), 59-78.
- Butcher, J. S. (1969), *MMPI : Research Developments and clinical Applications*, McGraw-Hill ; New-York
- Goldberg, P. A. (1968) Are women prejudiced against women? *Transaction*, April, 28-30.
- Kelly, J. A., & Worell, J. (1977), New formulations of sex roles and androgyny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101-1115.
- Lacher, D. (1973), *The MMPI : Clinical Assessment and Automated Interpretation*, wps professional handbook series, Petroit, Michigan,
- Ray, E., & Bristow, A. (April, 1978), Sex role indentities in depressed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uth 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 Spence, J. T., & Helmreich, R. L,m(1978), *Masculinity and feminity :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elates and antecedents*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 Tinsley, E. G., Guest, S. S., & McGuire, J., (1984), *Feninine Sex Role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Sex Roles*, 11, 25-32.